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낙원에서 추방되는 아담과 하와

사순절 전 주일 / 용서 주일(아담과 하와
의 낙원에서 추방됨을 기억하는 주일)

성 브르피리오스 가자의 주교

제3조 / 조과복음 3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3조 부활 찬양송 / 82, A 213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성당 찬양송

· 사순절 전 주일 시기송 / 220, B 271

· 사도경 : 로마 13, 11-14, 4 / 봉독서 441

· 복음경 : 마태오 6, 14-21 / 137, B 92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 ‘참회의 만과’

성 브르피리오스의 지혜로운 말씀 “당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 한 번의 양보를 하십시오”

이기주의로 가득 찬 25세의 한 청년은 그의 아버지에게 옆 상점을 사들여 자신의 상점을 확장시키기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생각은 그것은 상도덕에 어긋나는 것이라 여기며 조언을 듣기 위해 성인을 찾아갔습니다. 성인께서는 하느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 아버지를 보자마자 당신의 아이는 아직 철이 들기까지 몇 년의 세월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서로의 대립이 거의 한계에 이르러서 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날 결심을 하였습니다. 성인께서는 하느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기에 비록 아이가 지금 실수를 하고 있지만 당신이 경제적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아이를 잃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보게 될 손실은 어려운 상황이 되겠지만 극복하지 못할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당신은 수많은 옳은 일을 했지만 한 번 정도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그 아이에게 좋은 공부가 되고 자신의 이기주의를 벗어날 때까지 당신은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성인의 말씀을 따라 아이에게 양보를 하였고 얼마의 부를 잃었지만 자신의 아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희망

왜, 슬퍼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왜, 절망하고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안돼.”라고 반복하면서 투쟁을 중단하십니까?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그 무엇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이들은 희망 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절망할 어떠한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은 유토피아가 아니고, 실제인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애정이시라는 믿음을 믿고 있고, 하느님은 아버지이시고, 하느님의 사랑을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어떻게 다음의 시편의 말씀처럼 반복 안 할 수 있을까요? “어찌하여 내가 이토록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이토록 불안해하는가? 하느님을 기다리리라!”(시편 42,11)

“하느님께 희망을 거십시오.” 하느님께 당신의 희망을 건다면 더 이상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로는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외아들에 대해 슬퍼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외아들을 죽음에 넘겨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베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느님의 끝없는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성 요한 크리소스톰께서도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느님의 끝없는 사랑에 대해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하느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은덕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외아들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치 없는 이들을 위해 외아들을 원수들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가장 위대한 것

을 당신의 원수들에게 내어주셨는데, 이제 당신의 외아들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당신과 동료가 된 사람들에게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것들이라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하늘의 우리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곁에서 지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해주신 모든 것에 대해 그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을 위해 그리 신경을 써주시는 분이 우리의 양식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애정이 가득하신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하느님께 희망을 걸지 않는 사람은 그를 믿지 않거나 그에 대한 믿음이 작은 사람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망은 믿음이 없거나 작은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둘러싸인 영혼은 어떠한 절망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사람들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어디로 피해야 하고 어디서 힘을 얻어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구원하시는 이”(시편 18,2)라고 다윗 왕은 자신의 삶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도 반복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으니 누가 감히 우리와 맞서겠습니까?”(로마 8,31)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한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느님께 희망을 거십시오.”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할머니와 연필

한 소년이 할머니가 연필로 편지를 쓰는 것을 보고는 물었다. “할머니, 누구에게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쓰는 것을 멈추고 대답하셨다. “애야, 바로 너에게 쓰는 거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연필이다. 네가 자라서 이 연필처럼 되길 바란다.”

그러자 소년은, “할머니, 무슨 뜻이에요? 이 연필에 그리 대단한 것이 있는 거 같진 않은데요?”라고 다시 물었다.

이 말에 할머니는, “네가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단다. 연필에는, 만일 너의 삶에 적용한다면 네 마음과 이웃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다섯 가지 좋은 특성이 있단다.”라고 대답하셨다. 그것은:

첫째, 연필은 항상 손에 의해 인도된단다. 너 또한 언제나 기억하거라. 하느님의 손이 그분의 뜻에 따라 너를 인도한다는 것을.

둘째, 연필은 잘못 쓴 것을 지우개로 지우도록 허락한단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에서 저지른 잘못들을 바로 잡을 수 있으며, 이로써 우리의 인생 여정을 성공적으로 계속하기 위한 바른 길 위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된다.

셋째, 때때로 쓰는 것을 멈추고는 (무디어진) 연필을 깎아야 한다. 연필을 깎을 때 연필은 잠시 동안 고통을 겪지만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잘 깎음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너도 고통과 슬픔, 어려움 등을 참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그럼으로써 너는 더 강해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되니까.

넷째, 실제로 중요한 것은 바깥쪽을 싸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연필심이다. 따라서 너의 안에서, 곧 네 영혼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항상 살펴야 한다.

다섯째, 연필은 언제나 뒤에 자국을 남긴다. 같은 방식으로, 너도 네 삶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지울 수 없는 자국을 남긴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너의 양심에 따라 하도록 하거라.

▶ 아타나시아

소 식

대교구

- **대사순절 시작** ▷ 내일 2월 27일 월요일부터 대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은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영적 투쟁을 하는 기간으로 음식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절제하고 사랑을 베풀며, 기도와 예배 참여를 하면서 영적으로 잘 준비하여 주님의 수난과 부활에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시다.
- **참회의 만과** ▷ 오늘 성찬예배 후 참회의 만과가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로 사순절을 시작하여 영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시간은 각 성당에 문의해 주십시오.
- **정교 주일 성화 준비** ▷ 다음 주일(3월 5일)은 정교 주일로서 성화 행렬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빠짐없이 성화를 준비하여 참례하도록 합시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대주교님의 5분 말씀** ▷ 매주 성찬예배 후 사랑의 오찬 때 대주교님께서 식사 마치는 기도를 하기 전 5분간 우리들의 영성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식사를 먼저 마쳤어도 같이 식사 마치는 기도 때까지 자리에 앉아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제1주간 예식

- 화·수·목요일 오후 5시 ▷ 석후대과
- 3월 1일(수) 오전 9시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3월 3일(금) 오후 6시 ▷ 제1성모 기립 찬양
(자세한 예배 시간은 각 지역 성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